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2

2023

차 례

절세위인들

사람은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이다 4
조선해방의 력사적의의 5
혁명적당건설의 중대한 문제 6
창조의 기적을 안아온 호소문 8

오늘의 조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 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교육부문앞에
제시된 과업 10
다시금 강조된 문제 12
나라의 교육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교육과학연구중심기지 13
연구형대학건설은 중요한 교육정책 13
주체적화학공업발전에 이바지할 소중한 재부 16

사회과학부문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진행 17

도서소개

도서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에 대하여 20

좌 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고유의 특질 21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활동소식

가장 존경하는 오가미 겡이찌 박사선생 앞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교수, 박사 하리쉬 굽따..... 27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서 보내는 축하전문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교수 로헤껠레 깔론다 앙드레..... 28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명의로 된 축전 29

《자주와 주권, 사회발전》국제토론회 앞 31

《자주와 주권, 사회발전》에 관한 국제토론회 앞 33

자주는 주권국가의 생명이며 사회발전의 담보이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몽 쥬브..... 34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시대를 향하여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38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신분
세네갈 쑬레이만 바흐 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체사상
레지옹 도노르훈장수훈자 교수 에드몽 쥬브..... 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이 실현된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방글라데슈 박사 자한기르 칸..... 67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선
남아프리카 음파파 칸야네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위대한 나라
남아프리카 암브로쎄 음니씨 73

2023년에 주체사상이 가지는 중요성
유럽주체사상연구소 고문린 씨니오디움..... 78

위대한 주체사상을 배우고 체득하여 보다 널리 구현하자
기네민주당-아프리카민주련합 총비서대리 기네공화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오예 베아보기 82

실 화

누구와 먼저 통성을 할것인가 85

사람은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한 나라의 신문사 기자단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신들이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해줄것을 요청하였는데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라고,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라고 교시하시면서 주체사상을 창시되게 된 경위를 론리적으로 설득력있게 해설해주시였다.

계속하여 우리 당이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청소년교육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고, 그것은 사회발전에서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때문이라고 강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조선해방의 력사적의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탁월한 령도로 조선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민족해방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조선해방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고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은 일대 경사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고 세계평화수호에 공헌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조국이 해방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새 조선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의 혁명가들이 벌린 항일혁명투쟁은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민족해방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항일대전의 승리는 일제의 위험천만한 침략야망을 결정적으로 분쇄함으로써 제 2 차 세계대전을 세계반파쑈민주력량의 승리로 종결짓고 행성에 자유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게 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한 세계사적사변으로 오늘도 세인의 각광을 받고있다.

혁명적당건설의 중대한 문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당건설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보장이 수령의 당의 혁명적본태를 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기본으로 된다는 철리를 력사의 갈피에 깊이 새겨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의 본질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으로 선행리론이 제기하지 못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문제, 수령의 후계자문제에 관한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고 로동계급의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혀주시여 로동계급의 수령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의 최고체현자, 뇌수이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령도함으로써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70 년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갈수 있는 억척의 토대를 마련하심으로써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나서는 고귀한 지침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어대며 사회주의,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을 전례없이 강화할 때에도 1992년 1 월 3 일 불후의 고전적로작《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그해 10월 10일에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당들의 령도적역할과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정당성, 그 승리의 필연성 등을 철의 론리로 밝혀주시였다.

창조의 기적을 안아온 호소문

사상중시를 혁명과 건설의 일시적인 전술적방책이 아니라 전략적이며 항구적인 투쟁의 무기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의 정신력은 나날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되였다.

2013년 5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남들이 10 년이 걸려야 한다는 이 방대한 공사를 단 1 년 남짓한 기간에 끝낼 불같은 열의밑에 불굴의 정신력으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 타오른 이 혁신의 불바람을 온 나라에 지펴올리실 원대한 구상을 하시였다.

그리하여 며칠후 온 나라 인민을 기적과 혁신에로 불러일으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호소문이 발표되였다.

호소문에는 전체 인민이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구절구절 뜨겁게 맥박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호소문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하게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8 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주동적이며 공세적인 투쟁으로 강대한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건설의 각 방면에서 활기찬 발전국면을 비상히 고조시키자는것이다.

조선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8 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결정들을 가장 철저히, 가장 완벽하게 집행하여 2023년을 공화국의 력사에 긍지높이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교육부문앞에 제시된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8 차전원회의는 교육을 발전하는 세계적추세와 시대적요구에 따라세워 높은 지적, 실천능력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낼데 대한 과업을 교육부문앞에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무엇보다먼저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고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지난 시기 교육부문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교육체계를 완비하고 새로운 교수관리제도를 도입하는것을 비롯하여 교육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왔다.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 기간의 경험을 적극 살리고 발전하는 현실과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교육구조를 고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였다.

우선 초등 및 중등교육부문의 교육구조를 일반기초지식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천성과 소질에 따르는 교육을 할수 있게 고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등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며 누구나 사회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된다.

또한 인재류형을 바로 정하고 그에 맞게 고등교육기관들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대학, 학부, 학과배치구조를 고치며 박사원교육구조, 교수관리구조, 대학입학학생선발제도를 비롯하여 고등교육구조를 고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도 취하도록 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으로 학생들이 다방면적이며 깊은 지식과 실천능력을 소유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개선하며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여 산지식과 실천능력을 습득할수 있도록 교육방법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이밖에도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교원들을 우대하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데 대한 과업들도 제시하였다.

다시금 강조된 문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8 차전원회의에서 다시금 중요하게 강조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척후병, 주력군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과학자, 기술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이미 여러 회의들에서 이 문제를 강조한 조선로동당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왜 다시금 강조하였는가.

대답에 앞서 언제인가 조선의 저명한 과학자가 한 말을 상기해보려고 한다.

비날론을 연구완성한 그 과학자는 후날 후대들이 비날론의 래력을 물어보거든 어떤 과학자나 기술자의 이름이 아니라 로동당의 력사를 말해주라고 하였다. 로동당이 없으면 조국도, 과학의 참다운 발전도 없고 과학자의 인간적가치와 명예도 없다는것이 그의 웨침이였다.

조선의 력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조선로동당의 기억속에 영생하고있는 전세대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기술을 알기 전에 당의 뜻을 알고 나라와 인민의 요구를 먼저 아는 혁명가, 애국자들이였다.

그들의 빛나는 삶은 나라의 부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알찬 연구성과를 내놓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실력문제이기 전에 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적신념, 애국심에 달려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나라의 교육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교육과학연구중심기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2023년 8 월 16 일 교육연구원이 현대적으로 건설되여 준공하였다.

연구원에는 고등교육연구소, 보통교육연구소 등이 꾸려져있으며 교육과학연구성과전시장과 문화후생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교육연구원이 나라의 교육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중앙교육과학연구기관, 교육정책자문기관답게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교육과학연구중심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연구형대학건설은 중요한 교육정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8 차전원회의에서는 중요대학들을 세계적수준의 연구형대학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또다시 강조하였다.

연구형대학은 학술수준이 최고수준으로서 인재양성의 견지에서 보면 종합형, 창조형인재육성을, 과학연구의 견지에서 보면 기초과학리론과 새 기술창조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중요과학기술성과의 대부분이 연구형대학에서 이룩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러한 대학은 과학교육과 기술창조의 중심으로 되고있으며 오늘날 국력을 평가하는 주요척도의 하나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현실적요구로부터 연구형대학건설을 교육부문의 중요과업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대학들을 연구형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고등교육기관들을 인재양성의 원종장, 믿음직한 과학연구기지, 사회경제발전의 중심기지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연구형대학건설에 관한 조선로동당의 교육정책은 중요대학들에서 먼저 토대가 있고 수준이 있는 학부, 학과들을 세계적으로 패권을 쥘수 있는 일류급학부, 학과로 만들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을 적극 벌려 그 대렬을 늘여나가는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대학들에 일반화하면서 연구형대학건설을 적극 다그치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교육정책에 기초하여 연구형대학, 일류급학과건설을 다그치자면 우선 연구형대학기준, 일류급학과기준을 바로 정하고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구조를 교수주도형으로부터 연구위주형으로 전환하고 선진적인 인재양성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은 실력있고 우수한 과학교육력량이다. 다시말하여 과학교육력량을 중심에 놓고 교육구조를 고쳐나가야 한다.

교육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강좌들을 연구소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연구형대학, 일류급학과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는것은 아니다.

특출한 실력을 지닌 인재들이 전공하는 분야에 따라 연구실을 내오고 그들이 과학연구와 인재육성사업을 이끌어나가게 하고 새로운 학과들을 많이 개척하고 연구수준과 함께 교육수준도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워야 한다.

연구형대학은 박사원교육을 중시하는 대학인것만큼 박사원교육구조를 고치고 박사원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실력을 지닌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

그리고 교육구조를 혁신하는데 맞게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도 따라세우면서 대학을 첨단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며 실험실습토대 등 교육조건과 환경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비하는데 계속 힘을 넣어야 한다.

주체적화학공업발전에 이바지할 소중한 재부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의 승리적결속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이 가속화되는 속에 자립적인 탄산소다공업창설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12 월 5 일청년광산 결정망초생산공정건설이 완공되였다.

나라의 화학공업을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데 대한 당정책관철에 떨쳐나선 건설자, 과학자, 기술자들, 광산로동계급은 충성과 애국의 힘과 열정을 분출시켜 결정망초생산공정을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화학공업발전의 토대를 한층 튼튼히 다지고 경제전반의 상승국면에 활력을 부어주었다.

결정망초생산공정이 완공됨으로써 무진장한 회망초를 리용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탄산소다를 비롯한 기초화학제품의 자급률을 높일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진행

조국해방 78 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가 2023년 8 월 14 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과학, 교육부문, 당간부양성기관, 혁명사적부문의 교원, 연구사, 일군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구불멸할 업적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탁월한 령도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인민에게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였으며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며 혁명의 승리이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신 탁월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령장이시라고 말하였다.

항일무장투쟁로선과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조국광복회 10 대강령과 조국해방 3 대로선 등 동서고금의 그 어느 서적이나 리론들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은 모두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견결한 자주적신념과 의지, 불면불휴의 사색과 탐구의 고귀한 결정체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은 전반적조선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떠밀어나갈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으며 항일의 나날 일관하게 견지하신 민족자주, 자력독립의 혁명적원칙과 립장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게 한 근본담보로 되였다고 밝혔다.

인류력사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헌을 한 이름있는 정치가와 위인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지만 위대한 수령님처럼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엄혹한 환경속에서 사대와 교조를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해방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전설적영웅은 일찌기 없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조국해방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고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은 일대 경사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고 세계평화수호에 공헌한 력사적사변이라는데 대하여 론증하였다.

그들은 조국이 해방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새 조선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의 혁명가들이 벌린 항일혁명투쟁은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민족해방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항일대전의 승리는 일제의 위험천만한 침략야망을 결정적으로 분쇄함으로써 제 2 차 세계대전을 세계반파쑈민주력량의 승리로 종결짓고 행성에 자유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게 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한 세계사적사변으로 오늘도 세인의 각광을 받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진두에 결연히 나서시여 력사무대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민족에게 재생의 서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조선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전통은 주체

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담보하는 만년재보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공화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상을 더욱 높이 떨쳐나갈수 있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은 다름아닌 백두의 혁명전통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련면히 계승되는 속에 전쟁의 폐허우에서 전설속의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14 년이라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을 배웠고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이룩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혁명신념을 억세게 간직하게 되였으며 이는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는 공화국의 가장 귀중한 전략적자원으로 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앞으로도 조선인민을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떠밀어주며 조선혁명에 백승의 힘을 안겨주는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주체조선의 고귀한 재보로 빛을 뿌릴것이라고 그들은 확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조선식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도서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에 대하여

사회과학출판사에서는 2023년에 도서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를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가혹하고 치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냈으며 세계평화를 수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이룩된 그 년대에 삼가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도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전화의 용사들의 위훈을 길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활동내용을 서술하고있다.

좌 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고유의 특질

2023년 9 월 9 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이 되는 날이다. 75 년의 기나긴 로정에는 시련과 난관이 참으로 많았다. 정말 어렵고 힘든 년대기들이였다. 그러나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발전하고 강해졌다.

시련의 고비에서 더더욱 강해지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진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지나온 로정에서 증명한 자기 고유의 특질이다.

이번호에는 75 년의 긴 로정에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에 보여준 자기 고유의 특질에 대하여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일군들과 나눈 이야기를 싣기로 한다.

리금희; 우리 모두의 삶과 행복의 요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맞고보니 우리 공화국이 정말 형언하기 어려운 시련의 고비들을 발전과 비약의 도약대로 삼고 힘찬 진군을 이룩하였다는 자부와 긍지가 솟구쳐올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였습니다.

윤용남; 저도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한 국가의 나이가 75 살이라고 할 때 결코 작은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건설의 75 년력사에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였다고 하면 그리 놀랍고 새삼스러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년대기들에 맞다든 고난이 많았는데 그 모든것을 헤치고 우리 공화국이 승리와 번영을 이룩하였기에 우리가 깊은 감동속에 돌이켜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성국; 예. 우리 공화국은 창건된지 2 년만에 그야말로 요람기에 100 여년의 침략전쟁력사를 가진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겪게 되였습니다.

미제는 전쟁 3 년간 우리 공화국에 1 ㎢당 평균 18 개의 폭탄을 퍼부어 우리의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 교육문화시설들을 재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인민들의 생활은 말할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미제는 조선은 100 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우리를 동정하는 벗들도 과연 조선이 이 난국을 어떻게 뚫고나갈것인가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으로부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복구건설에 일떠섰습니다.

리금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시기에 벌써 전후복구건설 설계도를 완성하도록 하시였으며 정전후 곧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김혁철; 그렇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로선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은 반당종파분자들은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에 치중한다느니,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하며 우리 당의 로선을 반대하여나섰습니다.

천순금; 그러나 우리 인민은 당의 두리에 뭉쳐 없는것은 만들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3 개년복구건설계획을 2 년 8 개월동안에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재더미를 헤치며 복구건설을 마친 우리 인민은 인민경제 5 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윤용남; 5 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튼튼히 닦으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이였습니다.

5 개년계획수행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5 개년계획은 막대한 투자와 높은 기술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 등 모든것이 부족하였으며 기술도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혁철; 게다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반공》모략이 전례없이 발광적으로 감행되였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시련도 우리 공화국의 전진을 멈춰세우지 못하였습니다. 혁명적대고조, 천리마운동으로 사회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이 진척되게 되였습니다.

리금희; 사회주의기초건설도 사회주의전면적건설도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천순금;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을 하던 시기 미제는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고 바크보만사건을 도발하였습니다.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적인 투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였던 허리띠를 풀새없이 오늘에로 달음쳐왔습니다.

김성국; 하기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은 너무도

청소하였으나 세계제패야망에 환장한 미제는 참혹한 전쟁을 강요하였고 빈터우에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힘들게 복구하면 또 새로운 침략의 위험을 몰아왔으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하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로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윤용남; 우리 공화국은 항시적으로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전쟁도발책동에 직면하여왔습니다.

미제가 정전후 50 년동안 한국괴뢰지역에서 벌린 각종 전쟁연습과 군사훈련은 공개된것만 하더라도 총 1 만 3 700 여차나 되며 그가운데서 군종별, 병종별 미군의 단독군사연습은 2 400 여차나 됩니다.

천순금;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 땅우에 거창한 전변의 새 력사를 펼치고 위대한 승리만을 안아왔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섰습니다. 세인을 경탄시킨 전설적인 년대들과 전환의 분수령들은 례외없이 대내외정세가 복잡하고 국난이 닥쳐온 시기에 마련되였습니다.

김혁철; 지난 세기 90 년대에는 공화국을 겨냥한 미제의 핵전쟁위협이 절정에 달하였고 가장 횡포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였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몇해째 자연재해를 당한 우리 공화국에 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왔고 우리 인민의 앞길에 형언할수 없는 고난과 도전이 첩첩히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노예가 되겠는가,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이 되겠는가,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고 하시면서 선군의 길에 나서시였습니다.

김성국; 우리 인민과 세계 인민들이 다 공인하는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강인담대하고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게 되였습니다.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대결전에서 승리하였을뿐아니라 강국에로 질주하는 우리 공화국을 보고 온 세계가 《기적이다!》라는 말로 자기의 놀라움과 찬탄을 표시하였습니다.

추억깊은 투쟁의 년대들에 발휘된 우리 공화국고유의 특질은 새로운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 더 높이 발휘되고있습니다.

윤용남; 그것은 더욱더 악착해지고있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악성전염병의 전파라는 극심한 조건에서도 수도와 전국의 농촌마을들에 새 거리, 새 마을이 련이어 일떠서고 현대적인 산업시설들과 과수, 축산기지들, 대규모남새온실들,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여기저기에 일떠서고있는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천순금; 부족한것도 많고 어려운것도 많지만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이 당과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말해주는 변혁적실체들이 끊임없이 마련되고있는 오늘의 눈부신 현실은 공화국공민들의 비약의 정신과 창조본때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김혁철; 우리 누구나가 느끼고 체험하듯이 오늘의 국난은 사상최악입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의연히 지속되고있으며 날로 로골화되는 적들의 침략책동은 그 도수를 훨씬 넘어서고있습니다.

어려움이 더해지고 가는 앞길에 장애가 많아도 우리 국가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왔습니다. 나라의 방위력을 억척으로 다지기 위한 사업도 최상의 경지에서, 국가의 발전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창조와 건설도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리금희; 그 모든것은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엄두도 낼수 없는 대용단이고 과감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혹독한 곤난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비약과 발전의 기회로 반전시키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특유의 기질이 형성공고화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천순금; 그것은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 멸사복무가 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인 인민들에게 불굴의 신념과 의지, 샘솟는 지혜와 진할줄 모르는 열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 인민은 자체로 살아나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며 자주적이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성국; 한차례한차례의 시련과 도전을 물리칠 때마다 우리 공화국은 더 강해졌고 더 높이 비약하였습니다.

국난을 이기고 한걸음 또 한걸음 전진하고 높이 비약하는 과정에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신뢰심과 흠모심은 더욱 높아졌고 공화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굳건해졌습니다.

리금희; 강철이 불길속에서 단련되듯이 시련속에서 더욱 강해진 우리 인민, 우리 공화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계의 많은 인민들이 시련과 난관에 반작용하여 더욱 강해지고 더 큰 승리를 이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질, 전진방식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오가미 겡이찌 박사선생 앞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교수, 박사 하리쉬 굽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2023년 9월 3일 로마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여 기쁩니다.

창건 75돐은 한개 나라나 민족에게 있어서 대단히 경사스럽고 의의있는 계기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근년간 사회발전분야들에서 뚜렷한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다 발전풍부화시키시였습니다.

조선의 수령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되였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삼고계시는 **김정은**총비서각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기발은 더 높이 휘날리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은 훌륭한 생활을 향유하고있습니다.

나는 나와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를 대표하여 당신이 이딸리아의 로마에서 국제토론회를 개최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 바랍니다.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서 보내는 축하전문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교수 로헤껠레 깔론다 앙드레

존경하는 조직자들과 참가자 여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 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이딸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토론회를 기회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는 나자신을 통하여 유럽지역위원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조선사회과학자협회 그리고 다른 대륙들에서 모여온 모든 참가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자주와 주권, 사회발전》으로서 비단 세계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웅변적이고 현실적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제적인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사이의 교류와 호상작용은 모두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것으로 됩니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는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이 교류에 적으나마 이바지할 준비가 되여있으며 본 국제연단에 이런 주제를 마련해준 조직자들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조선사회과학자협회에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보냅니다.

이딸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본 국제토론회에 성과가 있으라!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명의로 된 축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 75 돐을 맞이하게 되며 조선인민과 함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영광넘치고 자랑찬 75 년의 공화국력사를 돌이켜보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의해 창건된 때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구하고 승리적인 자주, 주권, 사회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 그리고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에 의해 지도되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기에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사상과 신념, 결심과 의지에 따라 자체의 실정과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그리고 자기의 식으로 풀어나가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되고 발전하였으며 력사의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세계를 놀래우는 승리와 변화를 이룩하여왔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총비서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조선인민의

존엄은 세계 만방에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이의 비범한 령도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은 온 세계에 과시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이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 혁명이 승리한다는것을 모든 진보적인민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사회주의강국입니다.

세계의 로동계급에게는 주체사상과 같은 강력하고 생활력있는 사상이 필요합니다.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보급하는것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에게 나서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오늘 많은 국가들이 제국주의전횡으로 하여 자주성을 잃고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해 전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주성을 지킬수 있는 강력한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 사상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이 창시하신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주체사상을 보급하는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으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가 세계의 모든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더 잘 알고 주체사상보급에서의 구체적경험들을 나눌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간주합니다.

우리는 ≪자주와 주권, 사회발전≫ 토론회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것을 바랍니다.

《자주와 주권, 사회발전》국제토론회 앞

친애하는 토론회참가자 여러분,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소집된 《자주와 주권, 사회발전》국제토론회 모든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내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절세의 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영웅적으로 사수하면서 75년의 승리적이고 영광스러운 력사를 새겨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을 맞는 아주 뜻깊은 시각에 소집된것으로 하여 매우 중요한 회합으로 됩니다.

토론회에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멍에에서 조선을 해방하시였으며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여 미제국주의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의 혁명적무장력을 필승불패로 강화하신 조선인민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강조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할것입니다.

우리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체계화하시였으며 **김정은**총비서께서 빛나게 계승하신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해 언제나 확신하며 조선인민이 주체의 기치높이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는 토론회가 주체사상보급을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와의 대결전과 정의로운 새 세계 건설에서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는데서도 매우 중

요한 계기로 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는바입니다. 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를 충심으로부터 축원합니다.

《자주와 주권, 사회발전》에 관한 국제토론회 앞

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공화국창건 75 돐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자주와 주권, 사회발전》에 관한 국제토론회와 토론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맞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격찬하고있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여주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통하여 매개 나라에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주최로 이딸리아 로마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이겨내고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각 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책임인물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이딸리아의 진보적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것과 동시에 세계 많은 나라 인사들이 화상방식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자주를 지향하는 많은 인사들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이번 국제토론회는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가일층 확대해나가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사이의 련대성과 우의를 두터이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자주와 평화의 리념밑에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열린 귀 토론회가 전체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의에 의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자주는 주권국가의 생명이며 사회발전의 담보이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몽 쥬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선생,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선생,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박철준선생,

이딸리아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의 외교대표들,

토론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주체사상신봉자여러분,

친애하는 벗들,

우리는 오늘 3년이상 지속된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이딸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로마에서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대회합을 가지게 됩니다.

《자주와 주권, 사회발전》에 관한 국제토론회는 세계정치흐름과 국제관계구도에서 급속한 변화와 심각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자주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75돐을 맞는 력사적시기에 열린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자못 큽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를 빌어 전체 참가자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숭고한 경의를 담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영생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고립압살책동과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세인이 경탄하는 눈부신 발전을 안아오시고 오늘은 이렇듯 뜻깊은 우리들의 모임을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충심으로부터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 기회에 화상방식을 포함하여 토론회에 참가한 모든 선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면서 특히 대륙과 대양을 건너 이 자리에 참석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오가미 겡이찌선생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본 토론회의 성과적개최를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인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마떼오 까르보넬리선생과 로마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 선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현실은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주적으로 나아갈 때만이 자기의 주권을 고수하고 사회발전을 담보할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지금 세계도처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발전권을 억제당하고있으며 그로 인해 인류가 강요당하고있는 고통은 이루다 형언할수 없습니다.

주권국가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명백히 행사하며 자기식의 정확한 발전행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나가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전 동방의 첫 인민민주주의국가로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전행보에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여왔습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은 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일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총대우에 국가의 존립도 지속적발전도 담보된다는 자주의 신념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적들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서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전에서 걸음마다

통쾌한 승리를 안아오시였으며 사회주의보루, 자주의 성새인 공화국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들의 자주리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파란만장 력사의 갈피마다에 그대로 어려있으며 공화국의 창건과 발전력사를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실천으로 증명된 이 리념은 진보적인류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기치로, 표대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서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자주의 길로 나아가려는 인류의 더욱 강렬해지는 지향과 더불어, 부강번영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와 더불어 영생불멸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모신것으로 하여 자주강국으로 그 존엄이 더욱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보건위기와 전례없는 지정학적위기까지 겹쳐든것으로 하여 국제력량관계의 급속한 변화를 목격하고있으며 새로운 국제관계구도에로의 이행을 결정짓는 분수령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의 국제력량관계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세계적인 핵강국으로서의 자기의 존재감을 뚜렷이 하여 세계의 모든 초점을 모으고있으며 새로운 국제관계구도에로의 이행을 결정하는데서 무시할수 없는 력량으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자주정치의 력사를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것으로 중시하고 자주를 공화국의 전진과 발전의 고귀한 지침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귀결입니다.

자주만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환경을 마련하고 인민에게 무궁한 행복을 안겨줄수 있는 길이라는 철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강인하게 인도하시여 공화국을 세계적인 핵렬강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습니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 멸사복무의 의지를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헌신은 공화국에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적진보를 보여주는 혁신적성과들을 안아왔습니다.

도시와 농촌 여기저기에서 현대문명이 응축된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솟아나고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창조물들의 향유자는 다름아닌 평범한 공화국공민들입니다.

기적적이고 신비하다고 할수 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견지하시는 자주로선의 참의미를 세상사람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고있습니다.

공화국의 75년력사와 미래는 진보적인류로 하여금 결코 인류의 리상이 꿈이 아니라는것을 확신시켜주고 인류를 새 사회건설과 새 생활창조에로 고무하며 옳바른 길로 인도해줍니다.

위대한 자주의 사상과 공화국의 고귀한 경험과 승리의 력사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거세찬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으며 이 흐름의 전렬에는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서있습니다.

나는 이번 토론회가 전세계적범위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벌리고있는 학계, 사회계, 정계 인사들사이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로, 세계가 자주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의의있는 토론회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모두를 축하하며 결실있는 토론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시대를 향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축하하여-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존경하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선생,

존경하는 유럽주체사상연구회 회장 에드몽 쥬브선생,

오늘 로마토론회를 훌륭히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유럽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마떼오 까르보넬리선생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먼저 세계주체사상신봉자들을 뜨겁게 고무하고 이끌어주시고 이번 로마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동지들을 다시 만난 기쁨을 안고 주체사상의 오늘의 의의와 위력에 대하여, 새로운 력사적단계에서의 세계주체사상연구활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시대는 주체시대

오늘 자주, 자립에로 향하는 력사의 치차가 힘있게 움직이고있습니다.

세계의 자주, 자립의 흐름을 견인하고 인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미래에로 이끄는것은 주체사상이며 실천적모범은 창건 75 돐을 맞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은 1945 년에 해방을 이룩한 후 1948 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사회주의를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되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독립한 나라의 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앞에는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고 혁명을 전진시키며 아직도 제국주의의 예속하에 있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원할 매우 어렵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의 파괴활동을 분쇄하고 그의 경제적지반을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며 제국주의를 매장하기 위한 전 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이바지할수 있을것이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를 반대하여 싸워 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에서는 독립후 어느 길을 갈것인가, 어떻게 건국을 이룩해 나갈것인가, 정치적진로를 옳바로 규정하는것이 절박한 요구로 나섰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에서는 독립후 주체사상을 따라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굳건히 다져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전진해왔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지난 기간 우리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모든 부문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의 빛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주적으로 자기의 정책을 규정하고 그 수행에로 근면하고 재능있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풍부한 국내부원을 동원하였기때문에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수 있었습니다.》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이 자기 나라 인민에게 철저히 의거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사회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합니다.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식민지하에서 기아에 허덕이던 인민들을 충분히 먹이는것이 중요한 정책으로 됩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공업이 뒤떨어진 발전도상나라들인 경우 우선 농업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놓고 자금이 축적된 다음 공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는데 옳은것같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조선의 경우 1946년에 토지개혁이 진행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 고생하여온 농민들의 소원은 일생 한번이라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선 토지개혁을 진행하여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민들이 품앗이반이나 소겨리반 등 협동적로동에 의하여 농사를 잘 짓도록 하여 농민들이 집단경리의 우월성을 리해하고 자발적으로 협동화를 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독립을 이룩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사문제해결에서 고심하고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독립전 제국주의가 내려먹인 단일작물심기의 폐단과 식량원조의 명목을 건 제국주의의 새로운 지배가 식량문제해결을 멀리하고있기때문입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독립 후 정치적자주, 경제적자립, 군사적자위의 3 대과업을 매개 나라의 실정, 매개 나라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실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나라의 사회경제적조건에 맞게 인민대중의 요구를 높이면서 사회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조선의 정책은 주체사상에 사상적기초를 두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발휘되고 조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20 년대의 조선민족해방운동에서 교훈을 찾으시고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습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이들의 잘못을 꿰뚫어보시고 이들과는 다른 길,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시였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출발점의 하나입니다.》

김일성주석께서 생의 좌우명으로 내세우신것은 이민위천입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는 인민대중이라는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혁명을 령도해오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은 승리한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것처럼 혁명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또한 **김일성**주석께서 교훈으로 중시하신 두번째는 모든 문제는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주석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신 시기는 력사상 처음으로 쏘베트사회주의가 탄생하고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국제당의 지도를 받고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조선도 례외없이 공산주의자로 자칭하는 당들은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고 서로 다투었고 쏘련에로의 류학을 동경하는 청년학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김일성**주석께 쏘련류학을 열심히 권고하였지만 주석께서는 조선인민에게 의거하고 조선에서 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거절하시였습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주체사상의 다른 하나의 출발점과 관련하여 혁명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진행해나갈것을 요구한다고 교시하시였습

니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후과로부터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혁명은 그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였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다른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또한 현시대는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위한 위대한 투쟁을 진행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진리성, 정당성은 더욱 명확해지고있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인민대중은 세계의 참다운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계는 더욱더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세계로 전변되고있습니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확증하고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독립을 이룩하고 새 국가건설로 들끓고있었습니다.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은 일미제국주의의 침략을 쳐부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조선을 주시하였으며 **김일성**주석에 대한 굳은 존경심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한 커다란 관심으로 표현되였습니다.

1976 년에 마다가스까르에서 세계 50 개 나라와 약 1 000 명의 대표, 당시의 라찌라까대통령이 참석하고 주체사상국제과학토론회가 열리였습니다.

참가한 나라의 대표들로부터 주체사상에 관한 상설적인 국제연구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습니다.

다음해 1977 년 평양에서 세계 73 개국, 4 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열리였으며 토론회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이 결정되였습니다. 결정에 따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사무국을 도꾜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참가하고있던 일본주체사상연구학술대표단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있는것은 우리의 경험과 주체사상의 진리를 배우게 해달라는것이라고, 우리가 보건대 일부 새로 독립한 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새 사회건설로선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고있는것같다고, 일부 나라들이 로선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고있는것은 국가지도자들이 새 사회건설에 관한 리론으로 무장하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직을 내오자고 한것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요구로부터 제기된것이라고, 우리는 이 객관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당시 기세차게 전진하던 쁘럭불가담운동 지도자로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새로운 침략책동에 경종을 울리시고 신흥세력나라들이 자기 나라 인민에게 의거하고 자주의 길을 걸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주체사상을 틀어쥐고 자기나라 인민에게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건국을 실현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고 하시면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조직은 정치단체로 되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어디까지나 학술연구단체로 되여야 한다고, 새로 독립한 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이 새 사회건설경험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조건에서 그 나라들에 우리의 풍부한 경험을 알려주면 새 사회건설에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새로운 국가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것을 바라시였으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계시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1978 년 4 월 9 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된 후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습니다.

지난 4 년간 코로나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국제적인 모임을 열수 없는 상황하에서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주체사상연구활동이 진행되였으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의 련계도 자주 가졌습니다.

2021 년, 2022 년에는 메히꼬를 주최국으로 하여 화상방식으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열리였으며 70 개이상의 연구론문을 보내오고 각 지역연구소의 주요성원들이 토론하였습니다.

올해 4 월에는 **김일성**주석탄생 111 돐에 즈음하여 도꾜에서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의 대표들이 참가한 속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45 돐을 기념하는 주체사상토론회를 성대히 진행하였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메히꼬에서부터 화상방식으로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체사상지역 연구소들의 대표가 로마에 모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축하하여 주체사상토론회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오늘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을 매개 나라 인민들이 틀어쥐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보급해나가기 위한 활동은 연구활동을 매개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조선의 경험을 따라배우는것도 중요하지만 조선의 방법을 그대로 흉내내거나 선전할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연구하고 자기 나라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창조적으로 적용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체사상을 깊이 배우고 광범한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조선과의 친선활동만으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대치할수 없으며 끝까지 주체사상을 높이 들고 활동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새시대의 반제투쟁과 남세계의 대두

매개 지역에서 일어나고있는 반미반제련대의 강화, 남세계의 대두는 인류사의 커다란 변화를 상징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렬강이 세계를 침략하고 지배하며 여러 나라에 식민지 예속국으로서의 본의아닌 생활방식을 강요한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저절로 력사무대에서 조용히 물러나지 않으며 반드시 최후발악을 하는 법입니다. 취약해진 미제국주의는 얼마 안되는 예속국을 이끌고 여러 나라에 간섭하고 침략전쟁을 일으키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반제투쟁에 대한 원칙적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으며 침략과 전쟁은 없어질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없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을 종국적으로 타승할 때까지는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반미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하여도 안되지만 결코 과대평가하여도 안됩니다. 지구상의 온갖 제국주의가 다 그러한것처럼 미제국주의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더욱더 죽어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취약성을 실증하여주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니다. 다른 한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앙양되고있으며 그 투쟁대렬은 더욱더 늘어나고있습니다.》

1949 년에 유럽과 미제국주의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결성되였습니다. 나토는 당시 영향력이 큰 쏘련에 대항하기 위한 서방의 군사적포위망으로서 존재하고있었습니다.

그후 쏘련이 붕괴되여 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되자 동쪽의 군사동맹인 와르샤와조약기구도 해체되였습니다. 그러나 나토는 해체되기는커녕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인입하여 동쪽에로의 확대를 계속해나가고있으며 발족당시의 12 개국으로부터 현재는 31 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는 로씨야를 붕괴시키고 약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있으며 이것은 로씨야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습니다.

더우기 미국대통령으로 바이든이 취임해서부터는 나토의 군사행동의 대상이 북대서양으로부터 훨씬 떨어진 아시아와 태평양에까지 미치게 되였습니다. 바이든은 2023 년 7 월 나토수뇌자회의에서 《중국의 야심과 위압적정책은 나토의 리익과 안전,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단정하고 중국에 적대되는 의사를 로골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일본수상 기시다 후미오는 나토련락사무소를 도꾜에 두기 위해 분주탕을 피우고 나토수뇌자회의에 참가하는 등 미국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있습니다.

일본은 나토의 전쟁에 가담하기 위한 국내체제의 정비, 군사예산의 확대를 위해 크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2022 년 12 월 미국방문직후 기시다 후미오수상은 안전보장에 관한 3 가지 문건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의 의향에 따라 군사비를 종래의 국내총생산액(GDP)에 비하여 1%로부터 2 배인 2%로 늘이고 2023 년도부터 5 년간의 방위비총액을 43 조¥정도로 한다는 결정은 종래의 계획에서 1.6 배로 늘어난 과거 최대의 증가액입니다.

2023 년 6 월 바이든은 2024 년의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행사에서 일본의 방위비증가액의 움직임은 자기가 기시다 후미오를 만나 설득시킨

성과라고 로골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바이든의 발언에 당황한 기시다정권은 일본독자적인 판단에 의한것이라는 등 변명을 반복하였으며 바이든의 발언을 덮어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이미 우크라이나전쟁에 가담하였으며 로씨야를 공격하기 위하여 막대한 군사원조를 주고있습니다. 오끼나와의 외딴섬들을 비롯하여 일본전토에 미군과 자위대가 배비되고 중국, 조선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도를 넘는 일본정부의 대미굴종과 다시 머리를 쳐든 군국주의적 야망은 아시아인민, 일본국민을 전쟁에 끌어넣는것으로써 결코 용서할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반제자주, 평화를 위한 커다란 움직임속에 있습니다.

중남아메리카에서는 좌파정권이 계속 출현하여 2023 년 현재 남아메리카 10 개국중 8 개국에 달하였습니다.

2018 년에 메히꼬에서는 국가재생운동의 대표 로뻬스 오블라도르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 메히꼬에서 처음으로 좌파정권이 출현하였습니다.

다음해 2019 년에는 아르헨띠나에서 4 년만에 좌파가 정권을 잡고 2020 년에 볼리비아에서 좌파가 정권을 탈환하였습니다. 2021 년의 뻬루, 칠레, 온두라스에서 좌파에로의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2022 년에는 꼴롬비아와 브라질에서 좌파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는 200 여년전부터 중남아메리카나라들을 자기의 《뒤동산》으로 부르면서 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군사적개입까지 하면서 지배하고 착취해왔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주적인 정책을 취하는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철저히 강화해왔습니다.

2022 년 6 월 아메리카수뇌자회의에 즈음하여 바이든이 로골적으로 베네수엘라, 니까라과의 수도를 배제한데 대하여 메히꼬의 로뻬스 오블라도르대통령은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반미적립장을 취하는 나라들이 뭉쳐 회의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중남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영향력회복을 노린 미국은 반미감정을 더욱 고조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023 년 5 월 브라질에서 남아메리카나라들의 련합(UNASUR)회합이 진행되였습니다. 회합에는 아르헨띠나, 볼리비아, 칠레, 꼴롬비아, 에꽈도르, 가이아나, 빠라과이, 뻬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11 개 나라들의 국가수반급이 참가하였습니다.

주최국인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은 《우리들은 호상 리익을 위하여 단결하든가, 혹은 대국의 꼭두각시가 되든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아메리카나라들이 반제립장에 확고히 서서 단결을 강화하고 지역의 안정, 번영을 실현할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미국과 카나다를 제외한 중남아메리카 33 개 나라들은 라틴아메리카 까리브나라공동체라는 틀거리를 만들고 련계를 강화하고있습니다. 까리브나라공동체는 《중남아메리카문제는 중남아메리카에서 해결한다》는 리념을 들고 지역내의 각이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 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 중남아메리카나라들은 로씨야, 중국과의 협상관계를 강화하고 최근에는 이란과의 관계도 강화하고있습니다.

2023 년 6 월 이란의 라이씨대통령은 니까라과, 베네수엘라를 차례차례 방문하고 각국수반들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무역협정도 체결하고 반미련대의 뉴대를 강화하고있습니다.

올해 중동나라들에서는 전례없는 커다란 변화, 아랍세계의 통일단결의 흐름이 강해지고있습니다.

2023 년 3 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7 년간의 외교단절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하였으며 국교정상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중동의 두 나라가 관계개선으로 지향한것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2023 년 5 월 수리아가 12 년만에 아랍련맹에 복귀하였습니다. 수리아는 2011 년 미국의 간섭에 의해 아랍련맹에로의 참가자격을 정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동나라들은 수리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미국과 결별하고 일치하게 수리아와의 관계개선을 다그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5 월 19 일에 열린 아랍련맹회의에는 22 개 나라의 기구대표들이 모여 수리아의 아싸드대통령을 환영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아랍련맹 가맹국이 공동의 기반, 가치관, 리익에 기초하여 공동행동을 취할것을 확인하고 《지다선언》이 채택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동지역에서도 정치경제적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있습니다. 바이든은 관계개선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 찾아갔지만 거만한 대응은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발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중동나라들은 반목과 분쟁의 원인을 조장하여온 외부세력과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지역내에서 협력하여 발전해나가는 단계로 걸음을 내디디였습니다.

자주, 평화에로 나아가는 세계의 흐름을 형성하는 세력으로서 주목되고있는것은 남세계입니다.

남세계는 지금까지의 발전도상나라라는 틀거리를 넘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무시할수 없는 존재로 되고있습니다.

남세계의 존재가 크게 주목되게 된것은 로씨야에 대한 나토의 부당한 전쟁이 계기로 된것입니다.

남세계나라들은 다같이 제국주의에 의해 침략과 략탈을 당해온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지배수법을 잘 알고있는 남세계는 우크라이나분쟁이 유럽과 미국이 로씨야를 공격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라는것을 잘 간파하고있으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여 제안한 로씨야에 대한 제재결의에 대하여 남세계의 3 분의 2 이상은 반대와 기권을 표시하고있습니다. 또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유럽과 미국의 결의안은 중국, 로씨야의 반대에 의하여 폐안으로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속에 기능부전에 빠지고있습니다.

남세계는 화상방식이나 직접적인 회합으로 결합되였고 공통된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단결하고있습니다.

2022 년 《남세계의 목소리 수뇌자회의》는 세계 124 개 나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였습니다.

의장국인 인디아의 모디수상은 《우리들 남세계는 미래에 대하여 최대의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세계인구의 4 분의 3 이 남세계 나라들에서 살고있다. 우리는 응당한 발언력도 가져야 한다. 따라서 80 년간에 이르는 세계통제의 낡은 모델이 서서히 변화되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제국주의는 남세계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는것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2023 년 5 월 7 개국히로시마수뇌자회의에서 바이든은 남세계를 3 분할하고 명칭을 바꿀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바이든의 제안에서 엿보이는것은 남세계의 분렬책동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제안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총비서께서는 세계의 자주세력의 단결과 협조를 실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당들과 단체들, 진보적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불신과 알륵을 조장, 격화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며 나라와 지역들의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있습니다. 혁명적당들과 단체들, 진보적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데로 투쟁의 창끝을 돌려야 합니다. 자주와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대륙별, 지역별협조를 강화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전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지배를 반대하고 자주, 자립, 협조의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은 확실히 현시대의 흐름으로 되고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옹호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이 제기되고있습니다.

매개 나라 인민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주화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자주화실현에서 주체는 매개 나라 인민이며 대상은 미제국주의입니다.

미제국주의는 랭전이 붕괴된 이후 일극화된 세계지배를 꿈꾸며 자주적인 나라들을 공격하였습니다.

2002 년 1 월 죠지 부쉬는 이라크, 이란, 조선을 《악의 축》이라고 지명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2003 년 이라크는 미제의 공격에 의하여 붕괴되고 지도자는 살해되였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고 중동에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켜왔습니다.

조선에 대해서도 일관하게 압살책동을 벌리면서 일본을 예속시켜 공격태세를 갖추고 핵무기를 탑재한 원자력잠수함을 괴뢰지역에 파견하여 공격기회를 엿보고있습니다.

랭전붕괴후 제국주의는 있지도 않는것을 사실인듯이 선전하고 해당 나라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정당화하여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은 선전수단을 리용하여 세계에서 내란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자주적인 정권을 붕괴시킨 다음 괴뢰를 내세워 지배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정변은 그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한 선전전은 주로 인공지능을 리용하여 짧은 시간에 방대한 량을 입력하여 서방에 유리한 여론을 유도하는데서 나타나고있습니다. 우크라이나분쟁에서 그들은 《로씨야가 민간인들을 대량 살해하였다. 렬화우라니움탄을 사용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미싸일을 쏴넣었다》 등의 선전을 집요하게 반복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로씨야가 진행하였다는 《만행》이라는것은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분쟁은 로씨야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저지시키고 자기 나라를 지키며 우크라이나인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군사작전을 전개한것입니다.

유럽과 미제국주의는 선전을 계속 류포시키며 대량살륙무기를 투하하여 우크라이나인민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자주력량의 힘은 여느때없이 커가고있으며 취약해져 멸망의 길로 굴러떨어진 미제국주의는 최후발악을 하고있습니다.

반제자주의 투쟁은 매개 나라와 지역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따라 커다란 힘으로 되여 새 세계를 빠른 속도로 실현해나갈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범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 인민대중의 시대이며 매개 나라 인민들은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투쟁하고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일떠선 매개 나라 인민들에게 제일 필요한것은 사회발전의 옳바른 방향, 미래사회에 대하여 아는것입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반드시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며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겪은 쓰라린 진통과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과 민족적독립과 번영에로의 빠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숙망이며 최고의 리상입니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숙망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의 착취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합니다.》

현시대에서 자기 나라와 세계를 자주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상정신적기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밖에 없습니다.

맑스는 19 세기중엽 유럽에서 로동계급이 가혹한 착취를 받고있는 현실을 보면서 자본주의사회를 타도하고 로동계급을 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상을 밝혔습니다.

레닌은 제정로씨야정치의 부패가 성행하고 인민대중이 기아에 허덕이는 사회상황속에서 1917 년 10 월 로씨야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여 사회주의정권을 세웠습니다.

초기의 쏘련은 로동자보다도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국가였으며 농민문제해결이 과업으로 제기되였습니다. 그러나 레닌은 정권탈취후 새 사회건설에 충분히 관여하지 못한채 서거하였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진보적사상으로 제시되였지만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한 후 어떻게 혁명을 추진해나가는가에 대하여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또한 인민에게 복무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일군들을 키우지 못한것도 요인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는 령도방법에 관한 체계화된 리론이 해명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계속하여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리론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밝혀졌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일군들이 어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지고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가 하는데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령도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적령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는 령도방법에 관한 체계화된 리론이 밝혀지지 못하였습니다. 맑스와 엥겔스의 학설에서는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찾아볼수 없습니다. 레닌이 령도방법과 련관된 사상을 일부 제기하였지만 그것은 단편적인것으로써 리론화되지 못한것이였습니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습니다. 세상에 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해낼수 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인 동시에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혁명에로 조직동원하는 령도방법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는 **김일성**주석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완벽한 해명을 보게 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위력,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도되는 조선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의 앞길을 밝게 비쳐주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당면한 민족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혁명을 수행할것을 내다보시였습니다.

1930 년 6 월 30 일 **김일성**주석께서는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연설에서는 조선혁명의 당면과업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것을 밝히고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하여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는것,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기층당조직부터 건설하는 준비사업을 진행할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이 민족해방을 이룩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혁명도 수행할것을 내다보시고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후 그자리에 머물러 있을수 없으며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세계혁명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사회주의제도수립 후 어떻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겠는가를 리론적으로 밝히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을 꾸준히 수행하여 그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을 쌓아나가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등의 로작들에서 밝히신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지침으로 되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총로선이라고 제시하시였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사이의 각이한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를 강화발전시켜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엄혹한 군사적긴장속에서도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건설투쟁을 드팀없이 다그칠데 대한 립장과 의지를 명백히 밝히시였습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인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김정일총비서의 사상리론적업적에 의하여 세계인민들은 현시대의 혁명사상인 **김일성**주의를 따라배우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사상, 리론, 방법을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다음에도 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고 일관하게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매진하시였습니다.

1990 년대초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되고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조선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무력으로 조선을 공격하고 붕괴시키려고 기도하면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켰습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싸일을 보유하고 선군정치를 실시하는것으로써 미제국주의의 군사행동에 정면으로 맞서시였습니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가 자기 나라를 지키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의 제일 어려운 부문을 맡아 사회주의건설에서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정치입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건설하고 인민대중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래일을 위하여 살자고 호소하시였습니다.

김정은총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사상은 분리할수 없는것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정식화하시고 그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밝혀주시였습니다.

김정은총비서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한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사상의 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대중에게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정치리념입니다.

이로부터 조선로동당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당사업의 원칙, 존재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오늘 조선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공산주의사회를 지향한 사회주의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습니다.

인민을 주인, 담당자로 내세우고 활동하게 하는 정치는 인민의 지지와 믿음을 얻고 인민의 보다 큰 힘과 지혜를 낳고있습니다.

2021 년 4 월에 진행된 청년동맹 제 10 차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총비서께서는 앞으로 15 년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실 전망계획을 밝히시였습니다.

미제국주의가 대조선압살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속에 **김정은**총비서께서는 미국본토를 사정에 넣은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시키시였습니다.

조선은 고도의 과학기술수준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훌륭히 성공시키고있으며 그 위력앞에 미제국주의는 어찌할바를 모르고있습니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의 성공은 단지 조선만이 아니라 자주화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모두의 기쁨이며 커다란 고무로 되고있습니다.

*　　*　　*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총비서께서 발전시키시였으며 **김정은**총비서께서 새로운 단계에로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합니다.

조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발전하고있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열렬히 축하하는것과 함께 주체사상을 세계에 보급하고 매개 나라 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것을 결의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신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 돐에 즈음하여)

세네갈 쑬레이만 바흐

친애하는 벗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오늘 위대한 주체사상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장 75 년간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인민의 요구와 리상이 훌륭히 실현되는 나라, 자주, 자립, 자위가 실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지구상에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뜻깊은 연단에서 조선의 사회주의강국의 시원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에 대해 토론할수 있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국건설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한결같은 숙원이며 현시대의 기본흐름입니다.

발전과 부흥을 지향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내달리고있는 복잡다단한 현 세계는 진정한 강국이란 어떤 나라이며 강국을 건설하는 가장 옳바른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인류가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에 력사상 처음으로 완벽한 해명을 주시고 한평생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강국건설의 초행길을 개척하신분이 **김일성**주석이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장 자주적인 국가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자주는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의 정치신조이고 혁명실천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근본원칙이였습니다.

자주를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내세우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의 닻을 올리던 때와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에 벌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체적실정,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의 장기성과 렬강들사이의 모순과 대결 등 국가건설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요인들을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자주를 국가건설의 생명선으로, 초석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사대와 교조, 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독자성과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시였으며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요구와 조선인민의 리익, 조선의 실정에 맞게 주체적으로 풀어나가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는 조선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성새로 강화발전시켰으며 국가의 국제적권위와 존엄을 높이 떨치게 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입니다. 국가건설과 활동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데 철저히 지향복종되여야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과 우월성이 높이 발휘될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강국건설의 옳바른 길이 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국가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를 일떠세우시였습니다.

력사와 현실은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현해나가는 나라야말로 가장 강대하고 생명력있는 국가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습니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본성적요구이며 국가활동의 생명선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의 체현자인 당의 령도하에서만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과 분야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옳바로 조직진행해나갈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국가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국가의 존망, 인민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사회주의정권의 향도적력량으로, 국가를 당의 로선과 정책의 철저한 집행자, 관철자로 강화발전시켜오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참다운 복무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왔으며 그것으로 하여 세계를 휩쓴 세계적인 정치풍파와 오늘의 엄혹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며 강국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자주와 이민위천을 국가건설의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당의 령도를 통하여 그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강국건설의 귀중한 본보기로 되고있습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을 공화국의 유일한 주석으로,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절세의 위인들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불패

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될것입니다.

나는 토론을 마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그리고 오늘 조선을 더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해나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체사상

레지옹 도노르훈장수훈자 교수 에드몽 쥬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 75돐을 맞이합니다.

공화국의 지난 70여년을 돌이켜보면 오늘의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을 위해 **김일성**주석께서 얼마나 크나큰 업적을 쌓아올리셨는가에 대하여 잘 알수 있을것입니다.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과 국가 그리고 군대의 창건자이십니다. 그이께서는 나라가 일제의 강점하에 있을 때 혁명투쟁에 나서시여 조선사람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해방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사람들은 하나로 뭉치여 일제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10여년간의 무장투쟁을 벌리여 1945년 8월 드디여 나라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벌리시던 시기에 벌써 당창건준비를 갖추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의 창건을 선포하기에 앞서 앞으로 창건될 당의 기초를 축성하고 확대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늘 강조하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나라가 해방되여 불과 두달도 못되는 1945년 10월에 창건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김일성**주석의 령도하에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나라가 해방된 이후 **김일성**주석께서는 쏘베트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닌 다름아닌 조선식민주주의의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토지개혁과 같은 민주개혁들을 련이어 실시하심으로써 건국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령도하에 1948년 9월 드디여 동방에서 첫 인민민주주

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습니다.

1950년대초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장공격을 물리침으로써 민족자주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국가발전에서 영원히 견지하여야 할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그이의 한생이 깃든 정치사상입니다. 동서방이 두개의 진영으로 갈라지고 세계가 치렬한 정치군사적대립속에 휘말려들어있을 때 **김일성**주석께서는 철저히 그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는 사회주의길을 선택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원칙적립장을 견지하시였으며 자주로선을 항구적으로 고수하시였습니다.

그이의 령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자주화위업을 이끌어 20세기를 자주시대로 빛내이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방식을 결정하는 주요사상입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처럼 쎄브에 드는것을 반대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것을 선택하시였습니다.

쏘련과 동유럽의 기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이 련이어 붕괴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의연히 드팀없이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자주로선의 결과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마련한것 역시 **김일성**주석의 업적으로 됩니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령도하에 국가는 인민들에게 자기의 완전한 부담으로 먹을것과 입을것, 주택을 보장하였으며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또한 국가가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들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폐지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심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에 영원한 생명력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오늘날 복잡다단한 국제적환경과 정세하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전히 인류해방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완수를 위하여 전진하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은 자주시대의 영원한 수령이십니다.

그이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전략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이 투쟁에서 주되는 목표는 세계제국주의이며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면 자주를 위해, 사회의 진보를 위해 싸우는 모든 반제력량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구호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는 20세기 후반기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새로운 비약을 안겨준 기치로 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으며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에 의하여 가일층 풍부화되고있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유명한 구호를 내놓으시고 조선혁명을 자주의 한길로 이끄시였습니다.

언제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리의 력사는 또 한분의 걸출한 **김정은**령도자의 령도하에 변함없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하고있는 련이은 성과들은 온 세계를 진감시키고있으며 이는 조선로동당의 자주적혁명로선과 승리를 부르는 힘찬 포성의 귀중한 결정체입니다.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빛

내시는 **김정은**령도자의 령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주의 성새,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이 실현된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방글라데슈 박사 자한기르 칸

동지들과 벗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나는 나자신과 우리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와 선군연구국제중앙위원회와 방글라데슈신문 《더 데일리 포크》의 이름으로 전체 조선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주체사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것이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라는것입니다.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라는것은 주체사상이 사람을 중심으로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견해와 립장을 밝혔다는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인간문제인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제기된 세계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것으로 하여 이 문제에 해답을 준 이 원리가 사람중심의 원리로 되며 동시에 인간의 운명개척의 원리로도 됩니다.

주체사상은 또한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며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전하며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사람의 발전에 상응하게 발전한다는 세계에 대한 주체적견해에 기초하여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해야 하며 또 사람의 활동을 기

본으로 하여 세계를 대해야 한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립장을 밝히였습니다.

이처럼 선행한 모든 철학사상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주체사상의 특징은 그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밝혔다는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27일에 채택되였습니다. 이것은 인민을 위한 헌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적인 법전이다.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은 아무러한 예속이나 구속도 없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근본속성인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웁니다.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자들에게 있으며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밝히고있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은 인민들에게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과 그를 위한 해당한 조치들을 밝히고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며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배울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하여줍니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웁니다.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비롯한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공민의 로동에 대한 권리와 휴식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담보됩니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휴식에 대한 충분한 권리와 조건

을 보장받습니다. 이 권리들은 로동시간의 설정과 휴식일과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지난 50여년간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전진동력으로 되여왔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령도아래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수십년간 기적과 혁신을 창조한 조선인민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명백히 증명되였습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한 조선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의연히 강화되는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고있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힌 국가건설에 관한 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선

남아프리카 음파파 칸야네

오늘 우리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온갖 도전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맞이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5 년의 력사는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이 뚜렷이 과시된 승리와 영광에 찬 로정입니다.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초행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조선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신 그이의 령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게 한 근본원천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외세의 강권과 사대의식에 물젖은자들의 정면도전을 단호히 쳐갈기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도록 하신 그이의 대용단은 인민의 힘을 믿고 내리신 력사적장거였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초석우에 선 불패의 첫 국가실체를 일떠세우신 걸출한 수령이십니다.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주정치를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자주의 한길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으로 하여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였을 때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습니다.

국가와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리익, 후손만대의 행복은 곧 강력한 힘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이 그이의 불변의 지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의 혁명로선에서 단 한치의 탈선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였으며 조선인민을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시였습니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로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힘을 비상히 증대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제국주의자들과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의 압력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모든것을 조선혁명과 조선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오늘 자주, 자립, 자위의 대업은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가, 강철의 령장만이 견지하고 완수해나갈수 있는 위인의 위업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유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그 존엄과 강대성을 온 세계에 떨치고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발양시킬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령적지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자위적국방력을 최강으로 튼튼히 다져놓으시였습니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신과 속도가 창조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를 조선혁명의 생명으로, 국가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고 사대와 교조, 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며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되고 발전하여 왔으며 오늘도 자주의 강국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고 천명하시였습니다.

오랜 세월 조선인민의 숙망을 풀어주시며 주체조선을 강력한 힘을 가진 세계적인 강국으로 급부상시키신것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쌓아올리신 공적중의 공적입니다.

조선인민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위훈을 떨쳐가면서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력사의 반동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힘차게 전진해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을것입니다.

우리 남아프리카 가우텡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전체 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식사회주의가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앞으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위대한 나라

남아프리카 암브로쎄 음니씨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인터네트토론회에 초청하여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먼저 뜻깊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맞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전체 성원들을 대표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토론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위대한 나라》의 제목으로 나의 글을 제출하게 된것은 커다란 영광으로 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의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하는것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요구로 내세우고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불굴의 투쟁을 벌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강유력한 경제적, 군사적토대를 쌓았습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조선혁명의 근본리익과 나라의 존엄을 확고히 수호해나가고있는것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해놓았기때문입니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기적의 나라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려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활동의 전기간 조선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조선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기 인민의 힘, 자기의 자원, 자기의 기술에 의거하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고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경제토대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왔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립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뛰여난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생활력은 세계적으로 경제적파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경제봉쇄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조선의 사회주의가 끊임없이 승승장구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명백히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건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어느 나라와 민족이든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경제적제재와 세계적인 혹심한 자연재해, 특히 현시기 악성비루스전파상황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기적을 창조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조선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워 조성된 난국을 헤쳐나가실 확고부동한 결심을 안으시고 력사에 류례없는 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타올랐고 그 과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는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하여 경제건설은 혹독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였지만 조선은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여놓았기에 인공지구위성제작국, 발사국의 지위에까지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2000 년대에 세계를 휩쓴 대규모금융위기로 거대은행들과 독점체들이 쓰러지고 그 여파로 많은 나라들이 아우성칠 때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오늘 조선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의 경제토대가 강화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평양시 5 만세대살림집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 대규모온실농장건설 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은 바로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다져진 자립적민족경제의 강력한 토대가 있기때문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 더욱 륭성번영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기적의 나라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려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속에서도 조선반도와 세계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조선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은것은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수십년동안 다지고다져온 조선의 자위적국방력은 제국주의를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정의의 보검으로, 주체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담보하는 억척의 성새로 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력강화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을 련이어 이룩하고 있습니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자기를 지킬수 있는 힘이 없었던탓에 망국노의 설음을 당해야 했던 조선민족이 오늘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제손으로 마련하고 존엄높고 슬기로운 강대한 민족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자체의 힘으로 무장을 해결하고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해방후 정규적인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습니다.

또한 그이께서는 자체의 군수생산기지를 건설하도록 하시고 군수공업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과 국방과학기술발전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선의 국방공업이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강위력한 국방공업으로 건설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의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여 조선의 국방력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습니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수호의 정예대오로 철저히 준비되게 되였으며 그 어떤 침략세력도 타승할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강군으로 다져졌습니다.

또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튼튼히 다져져 전민무장화의 수준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전국의 요새화도 보다 완벽하게 실현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완성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최단기간안에 실현하도록 이끄시여 조국의 존엄을 영예롭게 사수할수 있는 확고한 군

사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2 년 한해에 극초음속미싸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 등에서 련이어 성공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담보할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강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갖추고있는것으로하여 존엄높은 국가로 세계의 전렬에 당당히 서있을것이며 평화수호의 믿음직한 보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맞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 만세!

2023년에 주체사상이 가지는 중요성

유럽주체사상연구소 고문
린 씨니오디움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맞으며 국제토론회를 조직하였습니다.

75 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대세력들이 감행하여온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높은 강도의 압력과 위협, 협박, 제재와 봉쇄대상이 되였었습니다.

이 나라가 감당해야 하였던 도전들은 너무도 잔인하고 위험하여 그 어떤 나라도 단 하루도 견지하지 못하였을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난관도 조선인민의 전진을 막거나 지연시킬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였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세계의 변화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밝혔습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다시말하여 각자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가리켜주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1920 년대중엽에 20 살도 안되는 나이에 일본의 군사적강점(1905-1945)으로부터 조선과 조선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신 **김일성**주석(1912-1994)에 의해 창시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은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시던 시기에 주체사상을 정립하시였으며 이것을 조선혁명전반에 구현하시였습니다. 식민지노예로 되였던 조선사람들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독립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방식을 규정짓는 기본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자연개조와 사회발전의 주인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1942-2011)은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고 풍부화시키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사상으로 되였으며 이 사상은 국가건설에서 구체화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규정하시였습니다.

세계사회주의위업이 실패와 위기를 겪고있던 지난 세기말에 이르러 사회주의조선에서도 형세는 같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자 적대세력들은 서둘러 세계에서의 《사회주의의 종말》을 선포하였으며 저들의 공격을 사회주의기치밑에 변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자기의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이 치렬한 대결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없애버리려던 적들의 기도는 실패를 면할수 없었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잠재력은 비상히 강화되여 조선의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되였습니다.

오늘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령도아래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보다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여전히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고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일심단결의 비결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튼튼히 단결된 나라입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자기들의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결되여있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에 살림집건설과 태풍과 큰물에 의해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에 동원될데 대하여서와 황해남도의 농사에 동원될데 대하여 지시를 주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주체의 원리대로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 실현하신 자주의 원칙은 국방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의 원칙이기도 하였습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고 표현하시였습니다.

인류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김정일**령도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령도자에 의해 계속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생명력을 언제나 빛내여주신 **김정은**령도자의 령도아래 주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의 복리를 귀중히 여기며 국제무대에서 존경을 받는 자주적이고 현대적이며 무적의 거대한 핵강국으로 남아있을것입니다.

지금 주체사상은 현대시기 가장 전파력이 센 사상으로서 세계적범위에서 광범히 퍼져나가고있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로부터 각 대륙과 나라들의 연구조직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조직체계에 망라된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분발하고있습니다.

현 국제적환경에서 주체사상의 구현은 자기 존재를 시위하고 정의와 환경보호를 요구하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인류에게 길을 밝혀주는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배우고 체득하여 보다 널리 구현하자

기네민주당-아프리카민주련합 총비서대리
기네공화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오예 베아보기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 여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맞는 뜻깊은 이 시기 기네민주당-아프리카민주련합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와 영웅적조선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은**각하께서 20 세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시되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심화발전된 주체사상의 계승자로서 활동하고계시는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 여러분,

오늘의 이 회합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체사상은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왔으며 또 이끌고있는 가장 정확한 사상이라는것을 전 인류에게 다시한번 상기시킬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계기로 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75 년간에 걸쳐 이룩한 강국의 위용과 자주적인 발전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이 참다운 발전을 이룩하려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속에서 얼마나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경축하는것은 싸우는 인민들이 나아갈 자주적인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해주는 중요한 기회로 됩니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동지들,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있는데서 표현됩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배우고 체득하여 보다 널리 구현하자, 이것이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들이 들고나가야 할 구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리익옹호를 제일사명으로 하고있다는것을 우리들은 모두 잘 알고있습니다. 쏘련이나 기타 나라들이 자주적리념과 민족성을 홀시한데로부터 결국 붕괴되였다는 력사적사실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에 와서 주체사상은 자기의 정당성을 보다 뚜렷이 과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은 자기의 생활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사상이라는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례는 사회주의조선의 오늘의 자랑찬 모습입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비렬한 반인민적이며 반국가적책동을 과감하게 짓부시며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놀라운 비약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이러한 눈부신 현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가 직접 목격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들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장 옳바른 길로 이끌고계신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동지들,

기네민주당-아프리카민주련합과 기네주체사상연구소조는 **김일성**주석과 아흐메드 쎄꾸 뚜레각하의 특별한 관심에 의하여 기네와 조선 두 나라사이에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맺어진 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번 대회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보다 두텁게 하고 두 나라사이에 있는 협조관계를 보다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되는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우리는 당신들편에 있다는것을 재확언하면서 전 세계 진보적나라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들에게 호상간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제국주의세력을 결정적으로 짓부셔버리자는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함께 헤쳐왔던 장구한 력사, 공동으로 성과를 이룩하던 때와 힘겨웠던 시기를 언제나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온갖 적대적인 도전을 짓부시며 협조와 호상존중의 정신을 지니고 미래를 지향해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투쟁은 우리들의 힘을 하나로 뭉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 여러분,

우리들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앞으로도 지지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과 함께 있으며 정의롭고 숭고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있는 힘껏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싸우는 인민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주체사상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기네민주당-아프리카민주련합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기네공화국 만세!

실 화

누구와 먼저 통성을 할것인가

렴정실

꾸바의 수도 아바나의 한복판에 있는 어느한 호텔의 드넓은 홀은 몹시 붐비였다.

국제민주녀성련맹 서기국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 나라에 오는 각 나라 대표단들과 대표들이 비행장에서 들어오기 시작한것이다.

먼저 온 대표단들, 새로 들어서는 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서로서로 소리쳐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홀의 한구석에 놓여있는 쏘파에 앉아 그 모습을 부럽게 바라보는 한 녀성대표가 있었다. 그는 련맹회의에 처음 참가하는 어느한 나라의 녀성대표 꾼구리이다.

난 언제가야 저렇게 그 누구하고나 너나들이로 인사를 하게 될가?

그는 그 누구와 아직 통성을 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이때 가방이며 트렁크를 메고 끌며 홀에 들어서는 아시아인녀성들이 있었다. 키가 유럽녀성들처럼 늘씬한데 나이지숙해보이는 녀성과 처녀들처럼 귀염상스럽게 생긴 젊은 녀성들이였다.

홀이 떠나갈듯 환희의 목소리가 터져올랐다.

《아!-》

여기저기에 앉아있던 대표단 단장들이 불쑥불쑥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가더니 그중 나이가 든 녀성을 붙잡고 기뻐 어쩔줄 몰라한다. 아마 그 녀성이 대표단 단장인것 같았다.

꾼구리는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어느 나라 대표단인가?

상봉의 기쁨이 고조되는 가운데 누군가가 그 단장의 손을 붙잡아 좌중의 한가운데에 앉히며 말하는것이였다.

《내가 그때 당신네 나라에 갔다온 후 인터네트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보았어요? 아 참, 내 손전화기에 그 원문이 기억되여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손전화기를 펼치더니 자기가 인터네트에 올렸다는 글의 내용을 보여준다.

《명랑한 웃음소리, 아름다운 나라, 강한 나라, 위인을 모시여 위대하다.》

화제의 중심이 된 그 녀성단장이 손전화기에서 큰 제목들을 모국어처럼 류창한 에스빠냐어로 소리내여 읽는다. 그러자 또 다른 한 녀성대표가 그 단장의 곁에 다가온다.

《나도 인터네트에 올렸어요. 내가 무엇을 올렸는가 보세요. 이건 내가 당신네 나라에 갔을 때 극장에서 예술공연을 보면서 찍은 사진들이예요. 그 사진들을 모두 올렸어요. 온 세상이 당신네 나라를 나처럼 알게 하고싶었어요.》

또 그옆에서 누군가 말한다.

《참, 산원에서 세쌍둥이가 퇴원하는 사진도 올렸어요.》

저마다 그 나라에 가서 본것을 다 찍어 그대로 제나름의 해석을 달아 인터네트에 올리였다고 한다.

그러자 그 단장이 더욱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3.8 절에 자기네 나라 령도자께서 화장품을 녀성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였다는 이야기, 일잘하는 녀성혁신자들이 남편들과 함께 예술공연을 관람하도록 극장에 초청해주시였다는 이야기...

끝없는 그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녀성들의 존엄을 존중해주시는 자기 나라의 령도자에 대한 자랑넘친 이야기였다.

(국제회의에 도착하자부터 판을 잡는 조선녀성대표단이야말로 큰 나라 대표단이구나.)

다음날 조선녀성대표단과 통성을 하고싶어 그들이 든 호실로 찾아가는 꾼구리의 손에는 친선과 우정을 상징하는 향기로운 꽃송이가 들려있었다.